



## 한준수\*이옥희 선교사 기도편지

79/190 Mu.4 BanFaapiyrom, Beungkamproi, Lamlukka, Pathumthani 12150, Thailand  
태국 66-86-060-3355, 66-87-090-3355. 한국사무실 02-443-0883  
미주사무실: 10582 Katela Ave., Anaheim, CA 92804, USA Tel.714-774-9191  
email: [hanleethailand@gmail.com](mailto:hanleethailand@gmail.com), [junsoohan@hotmail.com](mailto:junsoohan@hotmail.com)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90-090818-929 GP 한준수 이옥희

###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서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곳 태국도 어제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서 드디어 방콕과 주변 도시들에 락다운을 선포했습니다. 영국과 아프리카 변종, 특히 인도 변종이 상륙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로 고통 당하고 사망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닫고 있는 열 곳의 카렌 교회들은 모두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외진 국경 지역이라 사람들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아직은 안전하지만 언제 그 곳까지 퍼질지 알 수 없습니다. 병의 고통은 적지만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 침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카렌 난민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팬데믹의 재앙에서 비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에 선교하러 갔던 뿌리차 목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일년 이상 묶여 있다가 얼마 전에 무사히 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폐쇄되어 산을 넘어 오는 모험을 강행했는데 주님의 인도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팔라우 교회가 그 동안 담임 목사 없이 잘 버티었고 미얀마에 개척한 신학교와 교회들도 덕분에 더 견고하게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후웨이행 교회는 지붕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해와 비를 피할 수 있어 앞으로의 공사가 훨씬 쉬어졌습니다. 형편이 닿는 대로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와 '미미' 전도사 내외가 건강한 가운데 목회와 건축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깡끄라짠 교회와 기숙사 건축을 위해 기도 부탁 드렸는데 대구의 장로님 한 분을 통해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 저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의 다윗과 완차이 형제 가정이 성수주일하며 착실히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빠멩과 뽕룩에 있는 아이들 기숙사는 주님의 은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의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지만 이곳들은 조금 나은 형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뽕룩 기숙사의 '블래' 전도사 내외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두 곳 기숙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루까 교회는 인터넷을 통해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성경 퀴즈를 통해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많이 걱정되지만, 종말에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훈련시키시는 줄

알고 유사시에는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외가 먼저 백신 주사를 맞고 또 여러 성도들이 백신을 맞으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 무한정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속히 주사를 맞고 힘있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내외가 건강 검진과 치아를 비롯한 몸의 약한 곳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양국의 격리 규제와 재 입국의 어려움으로 여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외출을 삼가지만 부득이 하게 나갈 때가 있고, 또 일년 비자 연장을 위해 사진을 찍고 병원 진단서를 받고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합니다. 모든 위험 속에서 안전하도록,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교 동역자님 가정과 사역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태국에서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 드림



후왜이행 교회 지붕 공사 후 최근에 힘을 모아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자체적으로 함.



블레 전도사가 돌보는 기숙사 아이들



지난 4월 람루까 교회 부활절 예배 광경



현재 인터넷으로 예배. 교인들 사진을 의자에 붙여 놓음.